

담양군, 예비 문화도시 준비 본격화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위한 문화도시추진단 구성 실질적 협업·연계사업 발굴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이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문화도시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담양군은 문화도시추진단을 주축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진행되는 예비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지원할 계획이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실질적 협업·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문화도시를 위한 현장형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통해 문화도시 비전을 새롭게 선포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2021년 주요 사업으로 ▲'바퀴달린문

화도시, 담양 ▲라운드테이블 '문화도시'인 '작당소' ▲청년반장 '담양각색' 등 담양의 문화와 가치를 기록하고 주민 주도의 문화도시를 기획·구상했다.

임선이 문화도시추진단장은 "담양은 담양만의 고유의 자원이 축적되어 발전되고 있는 곳으로, 그만큼 국민, 예술가, 생활예술인, 문화활동가,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왔다"며, "그동안 축적된 주민의 힘이 문화가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문화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구 관사에서 지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은 '인문학 가옥'을 문화도시 거점 장소로 운영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31일까지 접수...실무 위주 강의·개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화순군이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돕기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아카데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카데미는 6월8일부터 7월6일까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총 5회 열리고,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맞춤형 컨설팅은 9월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화순군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을 접하고 국·도비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지역에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겨나 상생하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군청 일자리정책실(0379-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노인인식개선 그림공모전 온라인 전시

나주시청 유튜브 채널

나주시는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회와 SNS 감상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세대 간 인식 격차 해소와 노인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해 12월 추진했던 그림 공모전 수상작 20점을 선보인다.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꿈과 도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초·중·고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활기차고 도전적인 노인 이미지에서부터 먼 훗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영상 통해 감상할 수 있다.

SNS 이벤트 참여는 오는 16일까지 나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전시회를 관람한 후 감상평을 댓글로 남기거나 자신의 SNS에 링크 또는 인증샷(화면 캡처), 감상평을 게시하고 유튜브에 '참여완료' 댓글을 달면 된다.

앞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오프라인 전시회 관람 인증 사진도 SNS에 게시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오는 31일까지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

옥과 천변에서 야외 조각작품 25점 선보여



7일부터 31일까지 곡성군 옥과면 옥과초등학교 앞 천변에서 곡성군과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51회 견생조



각전이 진행된다. '견생조각전(見生彫刻展)'은 '보면 생명이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야

외 조각전이다. 현대조각의 저변 확대와 문화공헌을 위해 크라운해태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전시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9회째 운영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크라운해태 아트밸리 소속작가들과 광주 전남 작가들의 대형 야외 조각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천변이라는 자연과 일상의 공간에 조각작품이 어우러지자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견생조각전은 옥과 천변 전시가 끝난 후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성읍 곡성천 일대로 자리를 옮겨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견생조각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미래혁신과 경관디자인팀(061-360-2941)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정크아트로 아름다운 골목길 변신

구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

구례군은 구례읍 봉동리 일원의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변모 시키고 있다. 군은 한걸음 나아가 구례읍 농촌중심지 주민공모사업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예술적인 정크아트를 선보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먼저 구례미술협회 24명의 회원들이 풍나물공장에서 노후 되어 버리는 폐공나물시루를 가져와 정물화, 디지털 등 장르별로 그림을 그려서 예술품으로 승화 시켰다. 다양한 이미지 화분에 가지나 꽃을 심어 봉동2구 회관 일원에 배치하여 예술작품과 꽃을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례읍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치유사들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에 나와서 물주기 등 관리를 하고 있다.

더불어 원광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화분과 패트병을 업사이클링한 화분으로 훈훈한 길을 만들었다. 이석열 원장과 선생, 어린이 60명이 참여하여 패트병을 반으로 잘라 스티커를 붙여 나만의 화분을 만들었다.

김순호 군수는 "아이들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특화된 골목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 장성호 수변길에 야생화 군락지 조성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인 장성호 수변길에 야생화 군락지가 조성됐다. 장성군은 최근 제1출렁다리(엘로우출렁다리)에서 쉼터로 이어지는 수변길에 1000㎡ 규모로 대사초 골든라이트, 맥

문동, 수국 등을 식재했다. 대사초 골든라이트는 사초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대나무잎을 닮아 대사초라 불린다. 봄부터 가을까지 선명한 노란색을 띤다. 맥문동은 백합과 다년

생 초본으로 여름 무렵 아름다운 자태의 보랏빛 꽃을 피운다.

장성군 관계자는 "탁 트인 장성호의 풍광과 수변길을 따라 피어난 야생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